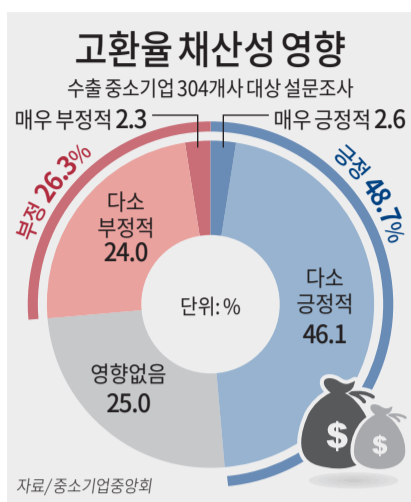


중소·중견, 환율 불안·인력난 심화

# 중소 걱정 환율, 달러당 1262원... '고환율 부정적' 26%

중기중앙회, 수출 중소기업 304곳 조사  
중소 절반 가량 환위험 대비 못해  
“안정적 환율운동” 등 정책 필요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손익분기점 환율은 1달러(\$)/당 1195원, 100엔(¥)/당 955원, 1유로(€)/당 131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환율은 1262원(달러), 973원(100엔), 1371원(유로)으로 각각 파악됐다.

하반기 예상 환율은 원·달러 1329원, 원·엔 938원, 원·유로 1417원으로 각각 예상됐다.

현재 환율(8월24일 기준)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재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10곳 중 3곳은 '부정적'인 영향을 각각 미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환위험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24~29일에 수출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해 5일 내놓

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우선 지난달 24일 기준 환율(1달러=1325원, 100엔=910원, 1유로=1436원)을 놓고 응답기업의 48.7%는 기업 재산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26.3%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이 중앙아시아인 중소기업은 42.9%가 현 수준의 환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영향없음'은 25%였다.

'긍정적'이라고 밝힌 기업의 경우 지급과 같은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달러 가치 상승)이 주는 좋은 영향으로는 '영업이익 증가'(89.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수출 가격 경쟁력 강화(12.8%) ▲기타(2.0%) ▲신규거

래처 다변화(1.4%)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고환율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73.8%) ▲영업이익 감소(35.0%) ▲거래처의 단가 인하 요구(26.3%) ▲물류비 부담 증가(20.0%) 등이 많았다.

이에 따라 환율 등락으로 인한 대응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는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리스크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절반에 가까운 49.3%에 달했다.

관리하는 기업들이 꼽은 환리스크 헤지 방법으로는 ▲수출단가 조정(23.7%) ▲원가 절감(16.4%) ▲대금 결제일 조정(6.9%)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3.6%) ▲선물 환거래 상품 가입(3.6%) ▲환변동보험 가입

(3.3%) ▲결제통화 다변화(1.6%) 순이었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대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안정적 환율 운용(61.5%), 수출 관련 금융·보증 지원(22.4%),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12.2%), 수출 다변화 지원 확대(11.8%) 순으로 많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과거 고환율은 수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됐지만 최근에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이유로 부정적 영향도 늘어났다"며 "정부의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환율 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출 관련 금융·보증, 환변동 보험 등 지원을 확대해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뿌리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일할 사람 부족하다"

중견련, 뿌리 중견기업 87곳 조사  
필요 인력 41.3명인데 8.5명만 채용  
지방위치, 대기업비 낮은 임금 등 원인

뿌리업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인력이 부족해 공장 가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내놓은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의 69%가 공장 가동이 힘들 정도로 채용이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똑같다.

실제 뿌리 중견기업 신규 인력 수요는 기업 당 평균 41.3명이지만 실제 총원 인력은 8.5명에 불과했다.

인력 부족률이 79.1%에 달한다. 지방의 인력 부족률이 81.2%로,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률(66.3%)보다 높았다.

직종별 인력 부족률은 '생산직'과 '사무직'이 79.9%, 79.4%로 가장 높았다. '생산지원직'과 '단순노무'는 66.7%로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뿌리 중견기업의 56.7%는 외국인고용허가제 기준이 완화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300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 뿌리중견기업에까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견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무직'을 제외한 생산직, 단순노무직 등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산직' 응답이 82.4%로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직'과 '생산지원직'이 17.6%, 14.7%로 뒤를 이었다.

인력 부족 요인은 '업무 강도 증가'에 따른 근로자 이탈(85.7%)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납품 지연', '생산 설비 가동 중단'이 각각 14.3%를 차지했다.

인력난은 ▲지방 소재(38.3%)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35%) ▲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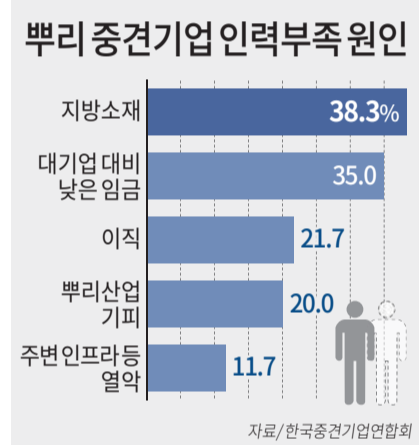
(21.7%) ▲뿌리 산업 기피(20%) ▲열악한 주변 인프라(11.7%)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수도권과 지방 소재 뿌리 중견기업들은 각각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지방 소재'가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뿌리 중견기업들은 ▲출·퇴근 교통비 지원(36.2%) ▲주거 보조금·기숙사 제공(25%) ▲휴가비 지급(13.3%) ▲야간근로 수당 지급(6.7%) ▲사내 편의 시설 제공(5%)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자체 노력만으로는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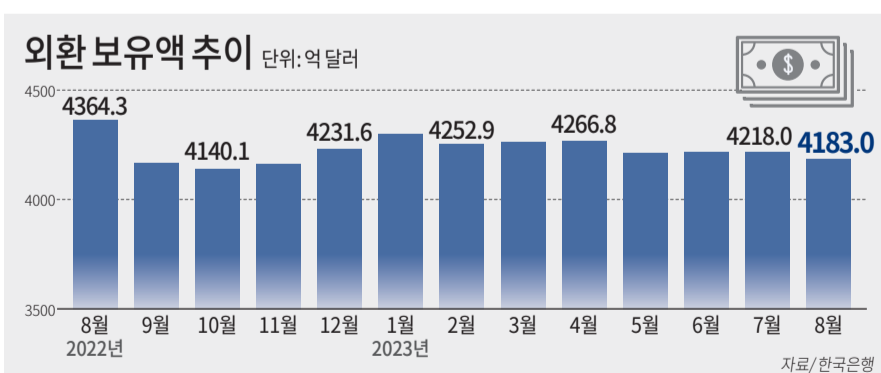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지방



과 수도권을 막론한 제조 업종 전반의 인력난을 감안할 때 소재지와 기업 규모 등 경직적인 기준을 넘어 전체 제조 중견기업까지 외국인 고용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교통, 주거, 문화 등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인력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 8월 외환보유액 35억弗 감소... "달러 강세 영향"

지난달 외환보유액 4183억 달러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5억 달러 감소했다. 6월까지 1200억대에서 안정되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30원대로 오르면서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8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183억달러로 집계됐다. 한달 사이 35억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달러화 강세에 따라 기타통화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다"며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7월말 101.62에서 지난달 말 103.16으로 1.5% 올랐다. 그 결과 유로화·파운드화·엔화 등 다른 외화자산의 달러환산액이 감소했다.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지난달 유로화 가치는 0.9%, 엔화 가치는 3.5% 하락했다. 호주달러와 가치도 2.7% 내렸다.

지난달 외환보유액 가운데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3790억3000만달러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25억달러 늘었다.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148억4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61억3000만달러 줄었다.

이 밖에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

출권(SDR)은 150억5000만달러(3.6%), 금 47억9000만달러(1.1%), IMF포지션 45억9000만달러(1.1%)가 외환보유액을 구성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로 전월 순위를 유지했다. 1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2043억달러로 한달간 113억달러 증가했다. 2위 일본은 1조 2537억달러, 3위 스위스 8839억달러로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첨단 파운드리 기술 진입 '미지수'

>> 1면 '중 7나노 공정 확인'서 계속  
EUV 장비 반입 할 수 없어

첨단 파운드리 기술로 진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도 7나노 공정에 DUV 장비를 도입하려 했다가 결국 EUV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국은 EUV 장비를 반입할 수도 없고, 반입한다고 해도 수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EUV를 적용한 7나노 공정을 양산한 게 2018년,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면 기술 격차는 5년을 훌쩍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EUV 장비를 도입했지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했다"며 "중국이 지금부터 EUV 공정을 적용한다고 해도 기존 파운드리 업체에 가까워지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반도체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미국 무역 제재가 틈을 보인 사건인데다가, 중국 현지 소비자들도 '애국 소비'에 나서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때문이다.

테크인사이츠댄 허치슨 부회장은 "중국이 핵심 제조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국가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화웨이가 미국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이 방중하던 기간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한 것도 무역규제에 대한 반발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반도체 업계도 중국 무역 규제를 완화하라는 목소리를 더 확대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7월 중국과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